



신한카드, 트립닷컴과 전략적 업무협약

신한카드는 최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과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일 신한카드 부사장(오른쪽)과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이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카드



GC녹십자, 오디오북으로 전하는 희망

GC녹십자가 임직원 목소리로 만든 오디오북을 독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들려준다. GC녹십자는 목소리 기부 사회 공헌 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드림'은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에게 동화책을 낭독하는 목소리와 도서를 기부하는 활동이다. '소리드림' 참여 임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HK이노엔,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HK이노엔의 유튜브 채널이 '2026 소셜아이어워드'에서 의료/제약 분야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HK이노엔은 자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이 '2026 소셜아이어워드'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HK이노엔 전략지원실 김기호 전무가 시상식에서 의료·제약분야 유튜브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HK이노엔



IM사회공헌재단, 어르신 맞춤 금융교육 실시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최근 어르신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디지털 금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금융교육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시니어 맞춤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금융교육에 참여한 강사들과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후송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유현경 △경기지방법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

부음 ▲장영일(전 서울대치과병원장, 전 대한치과병원협회장, 전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씨 별세, 고인평 씨 남편상, 장준호·준석 씨 부친상, 최은정·구현경 씨 시부상 = 26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6시 0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시안, 02-2072-2010

포스코 첫 노재 분야 명장 탄생... 이상휘 파트장 선정

내화물 유지·보수 분야 최초 명장
1988년 입사 후 노재 설비 수리 한길

포스코가 노재 분야에서 처음으로 명장을 배출했다. 38년간 노재 설비 수리 업무를 맡아온 이상휘 광양제철소 노재 그룹 파트장이 내화물 수명을 2배 이상 늘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6년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됐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사운영회의에서 '2026년 포스코 명장' 임명식을 열고 이상휘 파트장을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명장은 1988년 광양제철소 노재과에 입사한 이후 38년간 노재 설비 수리 업무에 몸담았다. 노재는 용광로와 전로 등 쇳물을 생산·가공하는 고온 설비의 내화물을 유지·보수해 설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뒷받침하는 분야다.



이희근 사장(왼쪽)과 이상휘 명장이 '포스코 명장' 임명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그의 대표 성과는 '노재 내화물 최적 설계 및 수명 향상 기술'이다. 설비에 적용되는 내화물의 설계를 최적화해 수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내화물 교체와 보수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설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기회손실 비용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내화물 수명은 제철소 생산성과 맞닿

아 있다. 고온의 열과 쇳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내화물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워지고 보수를 위해 설비를 멈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지난 2015년 명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재 분야에서 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철소 핵심 설

벤츠, 누적기부 515억... 수입차 1위

청소년 지원·환경 보호 등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아동·청소년 지원과 환경 보호, 자동차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사회공헌 위원회가 2014년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국내에 약 515억원을 기부해 수입차 업계 누적 기부금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형 기부 달리기 행사인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다. 2017년 시작된 이후 약 16만5000명이 참가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약 86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브 앤 레이스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10억원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5억원은 지난 6월 동두천·연천 지역을 관할하는 동두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전달됐



제13회 기브 앤 레이스 현장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다.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상담,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5억원도 부산시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조성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녹지 확대와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 서울시와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서울 시내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해 왔다. 지난 5월 서울숲에 마련한 그린플러스 도시숲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곳을 조성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정은 “AI시대 경쟁력은 사람의 통찰력”

(현대그룹 회장)

그룹 신입매니저 교육 수료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이끌 신입사원들에게 동료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 내 H-스타디움에서 '2026년 상반기 그룹 신입매니저 입문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료식에는 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신입 매니저들은 2주간 진행된 입문 교육의 과제를 직접 발표했으며 우수 교육생 시상과 격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연지동 현대그룹빌딩에서 열린 신입사원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동료 간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며 신입 매니저들을 격려했다.

/현대그룹

현대차, 아세안 현대컵 공식 후원

동남아 최대 스포츠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 아세안 현대컵(ASEAN Hyundai Cup™)의 첫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다.

아세안 현대컵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모로독 테코 국립경기장에서 개막했다. 1996년 창설 이래 격년으로 열려온 이 대회는 올해부터 현대차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이름을 바꿨다.

직전 대회인 2024년에는 5억4000만명 이상의 누적 시청자를 기록하며 동남아를 대표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대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되며 베

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1개국 대표팀이 출전한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아르칸 디카와 협업한 소셜 콘텐츠를 선보이고, 동남아 각국의 응원 문화를 반영한 스타커로 팬들이 차량을 꾸미는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한다. 대회 개막 전에는 태국·말레이시아 등을 도는 트로피 투어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세안 현대컵™은 아세안 전역의 축구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열정과 화합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아세안 공동체 정신을 함께 기념하는 데 기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화, 우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운영

‘우주의 조약돌’ 5기 출범

한화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5기 행사를 열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연말까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우주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